



이강인

이강인 부상 회복, 마요르카전 교체 출전

이강인(19·발렌시아)이 부상을 털고 그라운드에 복귀했다. 이강인은 19일(한국시간) 스페인 발레아레스주 이베로스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20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20라운드 레알 마요르카와 원정 경기에서 후반 16분 교체 출전했다. 이강인이 그라운드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11월 28일 첼시와 2019~202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당시 왼쪽 허벅지를 다친 그는 그동안 재활에 매진했다.

이날 이강인은 발렌시아가 0-3으로 뒤진 상황에서 30분가량 뛰었지만 이렇다할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다니 파레호의 경고 누적 퇴장으로 팀이 수적 열세에 몰려있어 반전을 노릴 상황도 아니었다. 발렌시아는 전반에만 3골을 내주는 등 부진한 경기력으로 1-4 대패를 당했다.

이날 마요르카에서 뛰는 일본의 19세 구보 다케후사가 후반 35분 교체 투입돼 한일 축구의 기대주들이 잠시 그라운드에서 맞서기도 했다. 발렌시아는 8승7무5패로 승점31에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최현길 기자

홍정운, 대구FC 새 시즌 주장 선임



홍정운

대구FC는 2020시즌 주장으로 홍정운을 선임했다. 2016시즌 대구를 통해 프로 무대에 데뷔한 홍정운은 K리그 통산 77경기 5득점 2도움을 기록한 중앙 수비수다. 그는 안정감 있는 수비력과 수비 조율, 제공권 장악, 뛰어난 위치 선정, 정확한 태클 등이 강점이다. 홍정운은 "K리그에서 가장 뜨겁고 열정적인 팬들이 있는 대구FC의 주장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대구는 현재 중국 쿤밍(1군)과 경상남도 남해(2군)에서 동계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GK 조현우 울산 현대 입단



조현우

울산 현대는 20일 "골키퍼 조현우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2013년 대구FC에서 프로 데뷔한 조현우는 7시즌 동안 K리그에서 210경기에 출전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K리그1 베스트11에 선정되는 등 정상급 골키퍼로 각광을 받았다. 2018러시아월드컵에서는 축구대표팀 주전 골키퍼로 조별리그 3경기에서 모두 선발 출전하는 등 A매치 16경기를 소화했다. 조현우는 울산의 태국 전지훈련에 합류하지 않는다. 태국전지훈련 종료 후 선수단에 합류한다.

“내 목표는 트래블...전복과도 같은 꿈”

울산서도 좋은 기억...팬들에 감사 더 큰 동기·목표 위해 전복행 선택 리그·ACL·FA컵 '3관왕' 하고싶어 내가 무얼 해야하는지 잘 알고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순위경쟁이 펼쳐진 2019시즌 K리그를 가장 빛낸 스타는 김보경(30·전북 현대)이었다. 울산 현대 유니폼을 입은 그는 지난달 2일 하나원큐 K리그 어워즈 2019에서 K리그 최우수선수상(MVP)을 수상했다.

퍼포먼스는 대단했다. 35경기에서 13골·9도움을 올리며 울산의 선두 레이스를 진두지휘했다. 포항 스틸러스와 정구리그 38라운드에서 패배 전복에 다 득점에 밀려 2위로 마쳤으나 김보경의 활약은 두드러졌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다. 그는 K리그 우승이 간절했다. 임대 선수 신분으로 울산에서 뛰 김보경은 꾸준히 "(울산의) 우승에 따라 미래도 바뀔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새 행선지를 놓고 많은 고민이 필요했다. 그는 결국 일본 J리그 원 소속 팀(가와사키 프론티어) 대신, K리그 잔류를 택했고 최종 기착지를 유럽 여정을 마친 자신에 처음 K리그를 경험시켜준 전북으로 정했다.

김보경은 2016년부터 2017년 전반기까지 한 시즌 반 동안 전북에서 7골·9도움(43경기)을 올렸지만 마지막 방점은 찍지 못했다. 2016시즌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정상에 섰으나 이듬해는 여름 이적으로 소속 팀의 K리그 우승을 보지 못했다.

돌고 돌아 다시 녹색 유니폼을 입고 스페인 마르베야에서 동계전지훈련을 소화하고 있는 김보경은 최근 스포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새 진로를 놓고 많이 고민했다. 팀 동기부여가 강하고 목표가 뚜렷한 전북에 끌렸다. 개인과 팀이 바라보는 곳은 동일해야 한다. 리그와 ACL, FA컵에 계속 도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북은 최강희 감독(상하이 선화) 시절부터 현 조세 모라이스 감독(포르투갈)까지 줄곧 '시즌 다 관왕'을 언급해왔다. 수년 전부터 부르짖었고,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꿈이지만 전북은 계속 도전한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K리그 우승을 하고 싶다. 그렇지만 전북이라면 그 이상을 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다.

적으로 마주한 전북은 김보경에게도 쉽지 않은 상대였다. "특히 위기에서 강했다. 팀으로서도 막강했지만 선수 개인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걸 다시금 느꼈다"고 엄지를 세웠다.

울산 잔류를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건 아



니다. 울산에서 최선을 다했고, 헌신했기에 존우승이라는 결과가 더 아팠고 충격적이었다. "우승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여겼다. 충분히 우리(울산) 우승할 수 있었다."

스스로 변화가 필요했다. 금전적인 조건도 중요하나 그 이상의 무언가가 간절했다. 자극을 줘야 할 시점이었다. "개인적으로 새로운 환경은 긍정적이다. 전북이 선수단 구성부터 큰 폭으로 바뀌고 있는데 당장은 안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좋아지리라 확신한다"는 그는 "(벤치의) 요구사항을 100% 이행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도 내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북 구성원들은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옛말이 있다. 김보경 봉쇄는 울산전을 치를 때마다 반복한 고민"이라고 지난 시즌을 떠올리곤 했다. 김보경은 "우리 더 강해질 것이다. 내가 무얼 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며 2020시즌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 2019 K리그1 MVP 김보경이 울산 현대에서 전북 현대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그는 "MVP를 받았음에도 우승에 대한 욕심이 간절했다"며 전북행 이유를 설명했다. 전북의 4연속 우승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김보경이 전후지 스페인 마르베야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사진제공 | 전북현대



'지는 법을 잊었다!' 리버풀 버릴 판 다이크(왼쪽)가 20일(한국시간) 안필드에서 열린 '2019~2020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고 세리머니 하고 있다. 맨유를 2-0으로 꺾은 리버풀은 22경기 연속 무패 행진으로 2위 맨체스터 시티와의 승점차를 16점까지 늘렸다. 리버풀(영국) | AP통신

천하무적 리버풀 '22경기 연속 무패'

맨유에 2-0...2위 팀과 승점 16점차

30년 만에 정구리그 우승을 노리는 리버풀의 행보가 거침이 없다.

리버풀은 20일(한국시간) 영국 머지사이드 안필드에서 열린 2019~2020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23라운드 홈경기에서 수비수 버질 판 다이크와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의 연속 골에 힘입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2-0으로 물리쳤다.

이로써 리버풀은 22경기 연속 무패(21승1무) 승점64로 단독 선두를 질주했다. 이번 라운드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와 2-2로 비긴 2위 맨체스터 시티(승점48)와의 격차를 16점으로 벌리며 우승에 한발 더 다가섰다. 리버풀은 맨체스터 시티에 비해 한 경기 덜 치렀기 때문에 19점까지 달아날 가능성이 있다.

경기 초반부터 맨유를 거세게 몰아붙인 리버풀은 전반 14분 선제골을 뽑았다. 코너킥 상황에서 공격에 가담한 다이크가 헤더 골로 기선을 제압했다. 리버풀은 선제골 이후에도 주도권을 쥐었지만 좀처럼 추가골이 나오지 않았다. 후반 막판 맨유의 추격으로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골을 넣은 쪽은 리버풀이었다. 썬기골의 주인공은 살라였다. 후반 추가시간이 끝나갈 무렵 골키퍼 알리송 벤테르의 롱 킥이 하프라인 근처에 있던 살라에게 연결됐다. 살라가 수비수와 경합을 이겨내는 드리블을 돌고 후 침착한 왼발 슈팅으로 상대 골네트를 흔들었다. 살라의 시즌 11호골. 벤테르의 2010년 3월 선덜랜드전의 페페 레이나 이후 처음으로 도움을 기록한 리버풀 골키퍼가 됐다.

1 펠리페 결정력 키우기 2 황경민 서브 살리기

창단 첫 우승 노리는 우리카드의 완벽주의

펠리페 기복있는 공격성공률 체크 황경민 서브 성공·범실률도 점검



'두 번의 실수는 없다.' V리그 남자부 선두 우리카드가 긴장을 늦추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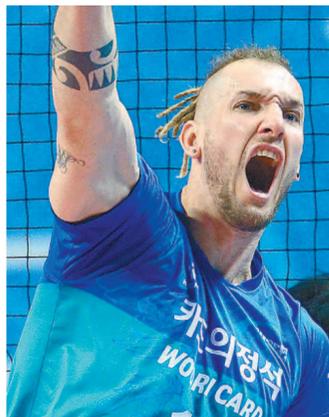
이유다.

2019~2020 시즌 팀 득점 1위(2021점)와 디그 1위(세트 당 10.149개) 우리카드는 부쩍 단단해졌다. 외국인선수 의존도를 낮춘 것이 가장 큰 변화다. 2018~2019시즌 아가메즈의 공격 점유율이 40.5%였던 우리카드는 이번 시즌 펠리페의 공격 점유율이 33.72%다. 득점 3위 펠리페(434점)와 삼각편대를 이루는 레프트 나경복(득점 59·325점), 황경민(득점 109·268점)이 베스트 멤버로 자리를 잡은 덕분이다. 우리카드

신영철 감독은 "국내선수들의 경기력과 수비, 눈에 보이지 부분들이 두루 좋아졌다"며 고개를 끄덕인다.

20일까지 승점44를 따낸 우리카드는 2위 대한항공(39점), 3위 현대캐피탈(36점)과 어느 정도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나경복은 "아직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시즌의 아픔을 잊지 않아서다. 최종 6라운드 초반 잠시 1위를 차지했지만 아가메즈가 복근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 뒤 4연패를 당해 미끄러졌다. 3위로 정구리그를 마친 우리카드는 플레이오프를 치르는데 만족해야 했다.

이번 시즌 창단 첫 우승에 대한 도전하는 우리카드는 선두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개선점을 찾고 있다. 첫 과제는 펠리페의 결정력을 높이는 일이다. 18경기를 소화하며 50.14%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 중인 펠리페는 세트별로 조금씩 기복이 있다. 최근 3경기에서도 종합 공격 성공률은 모두 50%대를 보였지만 4일 대한



펠리페

항공전 1세트, 15일 현대캐피탈전 1세트, 19일 OK저축은행전 2세트는 33.33%로 외국인 공격수로서 다소 저조한 성공률을 보였다. 신 감독도 "더 나아질 수 있다. 리듬을 계속 체크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2년차 황경민의 서브에 대한 기대치도 높다. 데뷔 시즌에 세트 당 0.063개의 서브 에이스를 뽑아낸 그는 이번 시즌 0.163개



황경민

까지 끌어올렸다. 전체 시도 대비 서브 에이스 성공률이 2.25%에서 4.62%로 올랐지만 범실률도 15.31%에서 17.82%로 증가했다. 신 감독은 "경민이가 서브에서 좀 더 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 아울러 어려운 볼을 처리하는 능력까지 좋아지면 팀이 더 재미있는 경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